

급락장에 널뛰는 환율까지... 투자자들, 매수냐 관망이냐

유가·환율 급등에 투심 냉각
코스피 장중 5100선까지 후퇴
外人·기관 매도에 변동성 확대
매수 기회론·변동성 경계론 엇갈려
전쟁 향방이 장세 가를 변수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하락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

개인투자자 이모(30)씨는 2021년 9만 원대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뒤 4년 넘게 수익을 못 내다가 지난 1월 '15만 전자'가 되자마자 팔았다.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치솟자 결국 지난 2월 20만원대에 다시 샀다. 이씨는 "짧게 조금만 벌고 나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 졸일 줄 몰랐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던 증시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9일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중동 사태 악화로 지난 4일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333포인트(-5.96%) 급락한 5251.87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4조 6000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2000억원, 1조5000억원 '팔자'에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52.39포인트(-4.54%) 하락한 1102.28로 마쳤다. 주말 후 열린 아시아 금융시장도 바짝 얼어붙었다. 낮케이 225 평균주가는 5.2% 급락했다. 대만 가

권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홍콩항셱지수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오후 3시30분 종가 1495.5원)를 위협했다.

◆유가·환율·사이드카까지... 불안 커진 시장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19.50포인트(5.72%) 내린 5265.37에 출발한 뒤 한때 5142.69까지 밀렸다. 코스피200 선물이 급락하면서 오전 9시6분 매도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매도 사이드카다. 코스닥 역시 6%

안팎으로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꼽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90원대로 치솟았다. 에너지 수입 부담과 외국인 이탈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변동성 확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건수는 총 3314건으로 하

루 평균 828.5건에 달했다. 1월 하루 평균 134.3건, 2월 183.4건과 비교하면 4~6배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주가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산·정유주 등 전쟁 및 유가 상승 수혜주 중심으로 자금 로테이션(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발 지정학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최대 변수로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저가매수 vs 빛투 부담... 엇갈린 전망

급락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폭락은 팔 자리가 아닌 사야 할 자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고 일간 나뭇잎이 과도한 데다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부터 반도체, 조선, 방산, 금융 등 주도주 중심의 매수 대응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도 "확률적으로 증시 추가 하락 시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포는 매수 기회"라고 밝

혔다. 이어 "이미 지난 3월 4일 장중 -12.65%(5059)를 경험했다. 이 레벨이 1차 매수 구간이며, 4816 도달 시 2차 적극적 비중 확대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빛투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도 2조1487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었다.

시장에서는 결국 전쟁의 향방이 증시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의 본질은 유가에서 출발하는데 환율이나 외국인 매도 움직임 등 아직 매수를 위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번 급락을 상승 사이클 속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2026년 이익 성장률 전망을 기존 120%에서 130%로 상향하고 코스피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높였다. 보고서는 "이번 하락은 조정에 불과하며 일정 기간 박스권을 거친 뒤 신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허정윤기자



zolkova@metroseoul.co.kr

고유가 덮친 채권시장... 커지는 고금리 충격 우려

유가 급등에 국고채 금리 가파른 상승
고유가 장기화 우려에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금리 상승)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유가·고물가에 이어 고금리에 대한 충격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19.3bp(1bp=0.01%포인트) 오른 3.420%를 기록했다. 연초 2.935%로 3%대 이하였던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지난달 9일에도 3.267%로 올라왔다 같은 달 말 3.041까지 다시 떨어졌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상승압력이 다시 자극된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 3일 2~10년 구간을 중심으로 15bp 안팎 급등했다. 만기별로 국고채 2년물은 15.5bp 상승한 2.973%, 3년물은 13.9bp 오른 3.180%, 5년물은 14.6bp 된 3.424%, 10년물은 14.8bp 오른 3.594% 등을 기록했다. 전 구간 상승폭이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2023년 10월 4일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덩달아 국고채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이다. 이날에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1.24달러까지 폭등하는 등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높은 유가는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운송 등 각종 경제활동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런 비용이 최종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면서다. 현 상황도 중동 사태 악화로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최근 글로벌 유가가 10% 오른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은 이미 불안 심리가 지배하고 있다. 200조570(6일 기준) 불어난 채권 대차잔고가 이를 말해준다. 연초 182조5380억원 대비 약 18조원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통상 금

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리 상단을 열어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를 경유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경로를 상향 수정하게 만들며, 이는 채권금리의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다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3년물 기준 하방 지지선은 기준금리 2.50%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3.0% 수준으로 상향,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상단은 3.30~3.40%까지 열려 있다고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수출이 떠받친 일본, 제조업 식은 중국... 경기 회복 온도차

정책 변수 속 경기 차별화 뚜렷
日, 수출·투자 힘입어 완만한 회복
中, 제조업 PMI 50 밑돌며 부진

일본과 중국의 경기 신호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밑돌았지만 수출·설비투자·고용이 반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중국은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며 수요 회복의 약한 체력이 재확인됐다.

◆日, 기대 밑돈 성장률... 회복 흐름은 유지

일본의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율로는 0.2%로 시장예상을

밑돌았다. 민간소비(0.1%), 주택건설(4.8%), 설비투자(0.2%)는 늘었지만 재고가 0.2%포인트(p) 깎이면서 국내수요 기여도가 포함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현지에서는 부진의 상당 부분이 재고 감소에 따른 것이어서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 국면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1.1%로 전년 역성장(-0.2%)에서 반등했다.

월간 지표를 봐도 일본은 내수의 온기가 강하진 않지만 외수와 기업 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12월 민간소비는 가구소비동향지수와 소비활동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1.4%, 0.4% 감소했고 소매 판매액도 전년 동월 대비 0.9% 줄었다.

반면 자본재총공급은 3.8% 늘었고 민

간기계수주액은 19.1% 급증했다. 1월 수출도 전기제품과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했고, 수입은 2.5% 감소로 돌아섰다.

고용과 임금, 물가 흐름은 일본 회복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 동경사무소는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명목임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대체로 포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中, PMI 다시 50 하회

중국은 제조업 경기의 체력이 다시 흔들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49.0으로 전월 49.3보다 0.3p 하락해 기준치 50을 계속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1.5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기업은 47.5, 소기업은 44.8로 내려가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생산지수는 49.6, 신규주문지수는 48.6으로 각각 하락했고 신규수출주문과 신규수입주문도 45.0, 45.6으로 모두 약해졌다.

비제조업도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2월 비제조업 PMI는 49.5로 전월보다 0.1p 올랐지만 서비스업이 49.7로 소폭 개선된 반면 건설업은 48.2로 낮아졌다. 종합 PMI도 4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현지에서는 춘절 연휴 장기화와 조업 정상화 지연에 따른 계절적 조정 성격이 크다고 보면서도, 신규주문과 신규수출 주문 부진을 감안하면 총수요의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정부, 석유 수입처 다변화

원유값이 뛰면 석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교통비와 공공요금 등 서비스 가격 및 식품·공산품 등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6월 당시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석유류(39.6%) 가격이 급등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4.8%), 가공식품(7.9%), 외식(10.4%) 등 먹거리 가격이 함께 치솟았고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국제항공료(21.4%) 등도 상승폭이 컸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급한 대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수입처의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유가 가격 급등의 국내 소비자 물가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 1면 '중동전쟁 후폭풍... '서 계속